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충남도, 현안사안 공동 해결을 위해 시군과 머리 맞대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1월 3일 오후 2시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道와 시·군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의 역동성 확충, 활력있는 농·어촌 만들기, 저출산·고령화대책, 친환경 생태환경 구축 등 분야별 열린 토론을 통해 민선4기의 새로운 도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

과 과제가 모색 되었다.

이날 ▲김봉한 공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역경제의 역동성 확충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도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살기좋은 농·어촌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기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주민참여가 제도화 되어야 하며, 전문가와주민간의 네트워크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는 “지역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안심서비스 프로그램」개발 등의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희성·장갑수 박사는 “충남의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급남·급북 생태축의 실정과 천안, 연기, 공주, 논산, 계룡시의 생태축 보전·복원 및 ‘당진-태안-서천 광역완충녹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道와 시·군의 관계자가 직접 토론하여 이론적인 연구와 실무행정이 만나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모아, 민선4기 도정의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의미를 두었다.

충청남도의회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의정발전 세미나



충남발전연구원(위원장 김용웅)은 10월 26일 오후 3시 30분에 보령시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충청남도의회와 발전방향과 분야별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의원, 연구원 관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전체 및 각 상임위원별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전체세미나에서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는 분권화와 광역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 향상은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가치를 위한 키워드가 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제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불류적 요소로 파트너십을 활용한 전문성 지원체제 형성, 둘째, 지식적 요소로 충남도의회 지식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 셋째, 기술적 요소로 의원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와 의원 학습조직 활용, 넷째, 행태적 요소로 조직진단과 핵심업무 중심의 기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별 세미나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박재정 충남대학교 교수의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와 집행부 발전방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는 ▲이영신 한서대학교 교수의 도내 저수지 등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는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의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건설소방위원회는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성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남발전연구원 제2차 정기이사회

- 성과관리시스템과 임금피크제 전국 지방연구원에서 최초 시행 -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12월 5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이완구 도지사와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는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팀제운영, 임금피크제 도입, 부서장 순환보직 등 혁신안과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직제규정, 재무회계규정, 연봉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했다.

특히, 혁신(안)으로 제출된 안건 중 성과관리시스템과 임금피크제는 전국 지방연구원에서는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성과관리시스템은 명확한 목표와 업무량을 기준으로 개인별 성과를 산정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제도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수 있으며, 또한, 임금피크제는 정년(60세) 3년전인 58세부터 적용하여 58세는 연봉의 95%, 59세는 연봉의 90%, 60세는 연봉의 85%를 지급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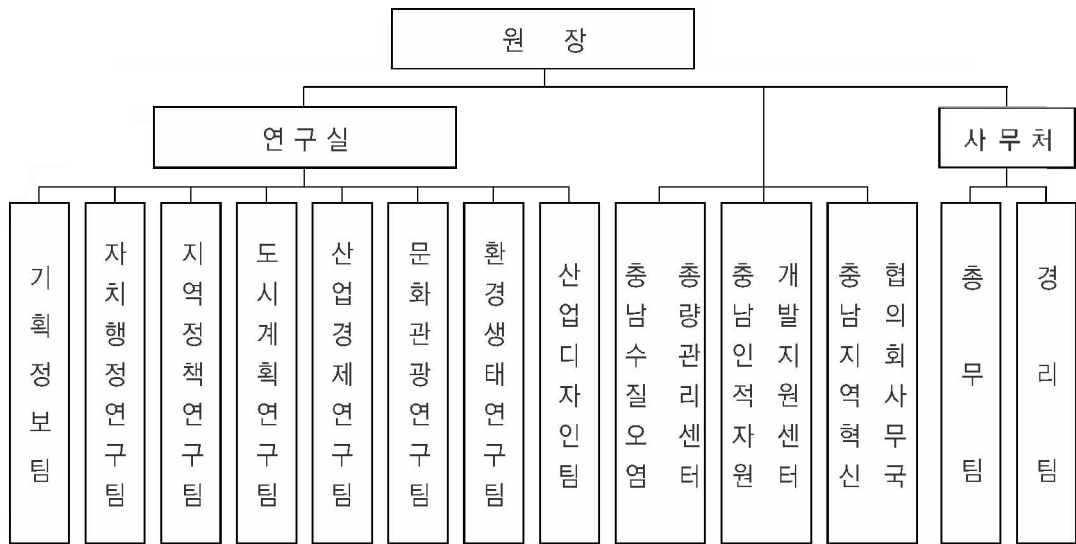
한편 이완구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하여 "충남발전연구원이 도와 시군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조직개편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자 2007년 1월 1일 자로 부서별 조직을 팀제 조직으로 개편하고 각 팀장을 발령하였다.

▲연구실 조직개편 : 4부 2팀 2센터(국) ⇨ 8팀 3센터(국).

사무처 : 변동 없음



▲ 연구실장으로는 송두범 연구위원이 발령되었으며, 각 팀별로는 기획정보팀 강영주 책임연구원, 자치행정연구팀 성태규 연구위원, 지역정책연구팀 윤갑식 책임연구원, 도시계획연구팀 박철희 책임연구원, 산업경제연구팀 신동호 책임연구원, 문화관광연구팀 이인배 연구위원, 환경생태연구팀 정종관 연구위원, 산업디자인팀 권영현 연구위원이 팀장으로 발령 받아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